

4-20-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27:50-54

말씀제목: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숨을 거두시고 죽으신 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 휘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비로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히 10:20)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그의 찢어진 몸을 통하여 열려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요 14:6)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모든 율법의 죄들을 십자가에 못박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찢어진 자신을 믿고 그의 육체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찢어진 몸을 통하여 지성소를 들어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신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율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난 후에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몸이 죽었을 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땅 속에 있는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지었던 죄들을 율법에 따라 그들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들이 흘렸던 피로 잠시 동안 보호받다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들은 믿었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왕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사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 16:8-10)

다윗왕은 그 당시 율법 아래서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는 모든 제사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시 40:6)

그는 또한 성령 안에서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 속에 있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시 40:7-9)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여, 보소서, (두루마리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고,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진 것이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히 10:3-9)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위대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히 10:10)

또한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속죄제가 율법 시대에 드러진 속죄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으셔서 그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니라.”(히 10:12-14)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단숨에 찢으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을 통해 그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더 이상 무덤에서 죽은채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무덤에서 일어난 구약 성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마 27:53)

마침내 무덤으로부터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간 많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로 하늘로 휴거되는 첫 열매들이 되는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소망 속에 잠들어 있는 신약 성도들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키시어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소망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다윗왕은 그가 부활할 때 바라는 소망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사도 바울은 신약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 아멘! 할렐루야!